

여우, 이젠 구미호가 아닌 복원대상종으로 바라볼 때¹⁾

정철운²⁾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소백산 일원을 대상으로 사라진 우리 여우의 복원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동안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종복원기술원에서는 여우복원사업을 하면서 여우에 대한 생태를 연구하고, 자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비록 오래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여우복원 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느낀 것은 바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이 함께 해야만 해당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원사업과 병행해서 지금까지 왜곡되고 부정적 이미지로만 묘사되어 온 여우의 본래 이미지를 되찾아 주는 작업 또한 시급한 일이며, 우리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일례로, 여우복원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그 요물을 왜 복원하는가? 여우는 정말 밤이 되면 사람을 홀리는가? 등의 우스갯 질문을 많이 받는다. 멸종위기종 복원사

업에 대한 서론은 각설하고, 종복원사업이 단지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아니며, 또한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나쁜 동물로 인식되어 온 여우의 이미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여우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었다.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직접 보았든, 이야기를 들었든, 동화책에서 보았든 여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하나 같이 교활하고 요물스런 동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여우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매혹적인 여성상 또는 지혜로운 노인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격화 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많은 문헌에서 사악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지금의 30대 이상에서는 전설의 고향에

1) Fox, Gumiho, Not Anymore, It is Time for Change as a Restoration Species Now

2) CHUNG, Chul-Un, Species Restoration Technology Institut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E-mail: batman424@naver.com



그림 1. 구미호로 묘사되는 여우



그림 2. 여우누이 동화내 여우 이미지

등장하는 ‘구미호’라는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여우누이’ 동화를 통해서 밤이 되면 오빠들을 죽이고 외양간에서 소의 간을 빼먹는 무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불여우, 백여우, 천년목은 여우 등의 이름으로 귀신으로 둔갑하여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왜 여우가 이리도 나쁜 동물이 되었던 것일까? 먼저 여우의 생활 습성부터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우는 깊고 험준한 산속보다 사람이 살고 농경지가 있으며, 시야가 뚫린 산자락의 양지바른 구릉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쥐를 포함한 작은 동물들을 잡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여우가 잡아먹는 대부분의 먹이는 농촌의 들판에서 흔히 보이는 설치류(쥐)이다. 세계적으로도 여우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서 생활하는데 특히 농경지가 있고 음식을 조달할 수 있는 수 킬로 이내에서 살

아가는 특징이 있다. 농경이 주를 이루던 옛 시대와 비교해 보면 여우는 항상 사람들 주변에서 생활하며, 결과적으로 어떤 이미지로든 자주 회자 될 수 밖에 없었지 않을까 한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어린 아이가 죽게 되면 따로 관을 쓰거나 봉분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냥 양지바른 언덕에 묻기만 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지바른 언덕은 이 땅에 여우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굴을 파고 새끼를 기르면서 살아가는 곳, 즉 여우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인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마을 주변에서 서식하고 해질 녘이면 나타나서 활동하는 여우의 습성상 밤이 되면 무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헤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어찌 보면 사람의 시체를 파먹는 요물로 오해받기 딱 좋은 형상인 것이다.

흔히 여우를 표현할 때, 천년목은 여우 또는 백여우, 백여시라고 한다. 사람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귀신이 되기도 하고, 기귀한 요

술을 부리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우는 나이를 먹으면서 여인으로 둔갑할 수 있고, 신령이 될 수도 있으며 천살이 되면 하늘과 통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우는 그만큼 묘사스런 이미지로 남아 있지만, 그 묘사스러움이 일말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승화되어 천년묵은 여우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경우를 보면 차라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요물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서운 동물이었다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대형 맹수는 공포의 대상이고 신성시 해야 할 이미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우는 크기도 작을 뿐더러 민가 근처를 배회하며 닭을 잡아먹고 무덤 주변을 파헤치니 좋은 이미지로 그려지기는 쉽지 않았을 듯 싶다.

우리는 흔히 약삭빠르고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여우같은 놈’ 이라는 말을 쓴다. 이처럼 시체를 파먹는 요물이 되는 것도 모자라 여우는 간사하고 교활한 이미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여우의 어떤 모습과 습성이 간사하고 교활한 이미지로 비치게 되었을까? 필자는 수년간 여우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우의 면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교활하고 간사함 보다는 똑똑하긴 하되 때로는 아둔하고 힘이 약한 불쌍한 동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간의 간사함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 표현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일 뿐이요 작은 몸집과 약한 힘으로 살아남기 위한 소위 똑똑한 행동들이 간교함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한다.

여우가 먹이를 잡는 모습을 보면 그리 영특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끈기와 지구력이 좋아 먹이가 지칠 때까지 따라다닌다. 또는 작은 쥐를 따라다니다가 쥐가 구멍 속으

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교활하고 간사함과과는 거리가 먼 듯 싶다.

반면 잡은 먹이를 먹을 때면 요놈이 바로 여우구나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확보한 먹이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요기만 하고, 다음을 위해서 주변에 묻어 놓는다. 묻을 때에도 한곳에 모두 묻는게 아니고 여러 곳에 얇은 구멍을 파서 조금씩 소위 한끼 분량씩만 저장한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또는 비가 와서 사냥이 여의치 않을 때면 묻어 놓았던 먹이를 꺼내서 먹곤 한다.

그뿐 아니라 새끼를 기를 때는 더없는 부정(父情)을 보여주기도 한다. 새끼가 태어나서 혼자 사냥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먹이를 저장하기 보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 여우를 위해서 잡은 먹이를 어미가 있는 굴 주변에 숨겨 놓는다. 그럼 어미는 살짝 와서 수컷이 가져다 준 먹이를 물로 다시 굴로 들어간다. 그리고 새끼가 커서 젖을 뗄 시기가 되면, 새끼를 위해서 직접 먹이를 물어다 주기도 하고, 어미가 잠시 외출하는 동안에는 대신해서 새끼들과 놀아주기도 한다. 특히 재밌는 것은, 새끼를 기르는 동안에는 어미는 새끼와 함께 굴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수컷은 그 주변을 배회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도 단지 배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굴 주변으로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경계를 선다.

이처럼 여우의 생활 습성을 이해한다면 교활함과 사람을 홀리는 귀신의 이미지 보다는 여느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예전부터 살아왔던 서식지가 그랬던 것이고, 가족을 꾸려서 새끼를 키우는 소중한 야생동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어찌보면 여우가 사람들 곁으로 와서 기괴한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그림 3. 다양한 여우 모습들(국립공원관리공단)

들이 원래 여우의 터전을 침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면 여우들이 보기엔 우리가 천년 묵은 요괴로 보이지 않을까?

2014년에도 종복원기술원에서는 여우를 도입하고 야생적응 훈련을 시킬 것이다. 그 후에는 적당한 때를 골라 다시 야생에 방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중국에는 성공적인 여우복원 사업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이젠 수십년 아니 수백년간 악의 상징으로 기록된 여우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우리 산야에서 함께 살아가고 우

리가 복원해야 할 소중한 동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김홍겸, 2011. 한중일 여우 이미지의 유사성과 차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제 50집. pp. 43-64.

<http://blog.naver.com/yk5667>

<http://blog.naver.com/malfoy117>

<http://blog.naver.com/22sumi>

<http://blog.naver.com/gemini761>

<http://blog.naver.com/adoniswon>

<http://blog.naver.com/kissdoo37>